

## 길홍사나 운명 점치는 동양의 문자유희 한자에 얽힌 신비한 이야기들 함께 소개

—「측자파자」 펴낸 신유승씨

이 책 그 사람

동양의 문자유희인 測字破字는 서양의 낱말놀이인 퍼즐과 비슷한 것. 漢字를 잘게 부수는 파자와,

결합하거나 추리를 동원해 그 뜻을 유추하는 측자를 통틀어 일컫는 측자파자는 개인의 길홍사나 운명은 물론 국가의 중대사 결정에도 이용됐는데, 일찍이 우리나라 때부터 유행해 唐·宋代에 이르러 절정기를 구가했다고 전해진다.

중국에선 입신의 경지에 든 고수급의 측자선생이 측자점을 봐 주는 집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현재도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가 개최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는 측자파자의 원리와 그 예를 충실히 모은 「한자에 얽힌 신비한 이야기 측자파자」(시간과 공간사)는, 재미있는 측자파자의 세계와 뜻깊은 한자의 오묘함에 빠져들게 한다. 이름풀이와 작명, 인생상담을 하는 철학관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갑골문자'를 독학하는 신유승씨(44)가 펴낸 이 책은 '한자 콤플렉스'를 안고 있는 한글세대도 접근하기 쉽게 편집한 점이 독자층을 넓게 잡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림이 문자화된 상형문자인 한자 속에는 선지자들의 지혜와 혼이 듬뿍 담겨 있어 측자파자를 통해 그 글자에 배인 정신을 풀어낼 수 있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의 즐거움도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까지도 선비들의 지적 유희로 전해오던 측자파자가 한자의 쓰임새가 줄어들면서 잊혀져가고 있어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보다 많은 독자들을 위해 우선 모든 문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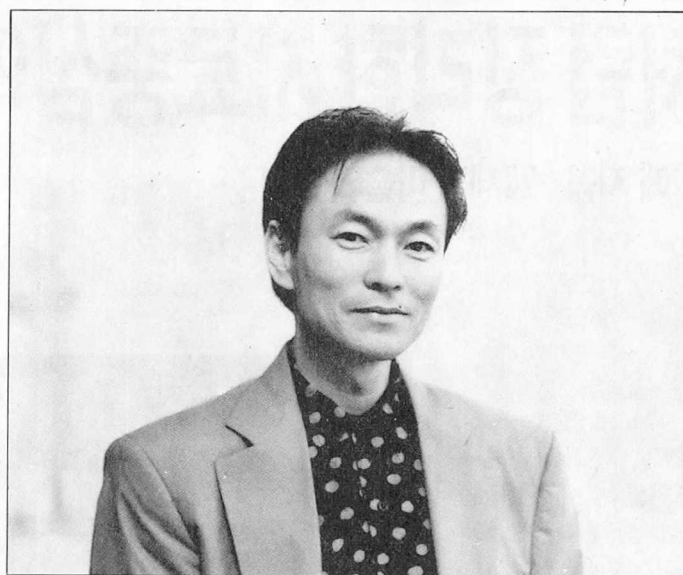
쉬운 문투로 하고, 한자의 앞에는 훈을 달아 막힘이 없도록 배려해 그저 읽어나가기만 해도 한자공부가 되도록 서술하는 데 힘을 기울인 신유승씨는, “다른 문헌에 비해 측자파자에 대한 고전은 드문 편이고, 그나마 단편적인 내용에 그친 것이 대부분이어서 자료수집에 가장 애를 먹었다”고 말한다. 한자에 능하지 않은 초보자들도 자전의 도움 없이 ‘측자선생’이 되게끔 친절할 해설을 덧붙인 이 책의 도입부엔, 당나라의 측천무후가 글자를 고치거나 새로운 글자를 쓰기를 즐겨 연호를 정할 때 나라 國자를 囿으로 표기하기도 했다는 일화 등 측자파자에 얽힌 흥미로운 옛이야기가 여럿 실려 있다. 본문의 내용은 측자파자의 비결 등으로 구성돼 있고, 중국에까지 가서 얻은 자료인 해우정서 장본 「識石 程省 測字秘訣合刊」을 권말에 붙였다.

수산대학을 나와 해군에서 복무한 전력의 신유승씨는 한자의 원형인 갑골문자에 심취해 독학으로 주역과 동양학을 섭렵한 이색적인 인물로, 일종의 예언서인 「格庵遺錄」의 해석서 3권과 성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 잘못되었나」란 책을 펴낸 바 있다.

“갑골문자를 통해 한자의 핵심을 캐치면 거기서 파생된 수만자의 나머지 글자는 저절로 익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4, 5백자를 밝혀내야 하는데, 현재 약 150여자 정도를 해석했습니다. 꿈이 있다면, 연구를 계속해 어렵게 문자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는 「한자타임머신」이란 가제를 스스로 붙인 바로 그 책의 출간을 진지하게 기다리고 있다.

— 최태원 기자



## 현업 작가가 공들여 쓴 일러스트 개론서 유명작품 다수 수록해 실제작업에도 도움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 펴낸 장춘현씨

이 책 그 사람

‘일러스트레이션’이란 용어가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인 미술용어로 오르내리기 시작한지는 그리 오래지 않다.

산업사회가 발달해갈수록 ‘상업미술’로서의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은 더욱 커져 종이 위에 그려진 모든 그림은 개인의 주관을 표현한 소수의 ‘파인아트’(순수미술)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술의 전영역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글의 설명을 돕는 그림, 동화의 상상력을 표현하는 아동물의 삽화 등 일러스트레이션이 없는 출판물이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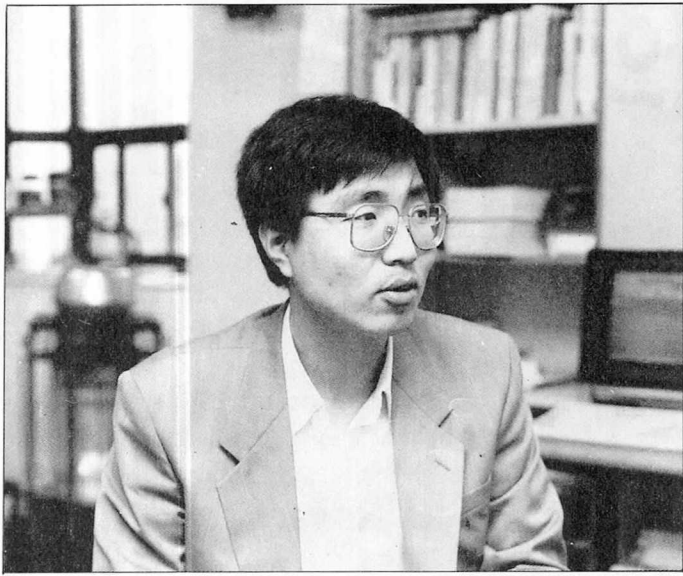
“최근 미술대학에서도 일러스트레이션 학과를 설치, 본격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를 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그렇듯 교육현장에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일러스트레이션의 교재가 전무하다는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실무현장에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들도 끊임없는 노력과 실험을 통해 항상 새로운 표현방식과 제작기법을 개발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줄 참고서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일러스트레이션의 상황에 비추어 늘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스크래치 보드’라는 일종의 판화기법을 이용한 독특한(우리의 눈에는 생소한 것이지만 일러스트레이션에 각종 기법이 시도되고 있는 서구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것이다)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유명한

「뉴욕타임즈 북리뷰」를 비롯해 「플레이 보이」 「위너스」 「코리안 타임즈」 등 미국의 유명잡지에 고정 클라이언트로 작품을 기고하고 있고 독특한 작품세계로 국내 일러스트레이션계에서도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장춘현(40, 필명 앤드류 장, 현 뉴욕 스퀘어 오브 비주얼아트 아시안학과 학과장) 교수가 최근 펴낸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디자인하우스)는 이제 말화의 단계인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도 없는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초유의 개론서로서 현업에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나 학생, 교수, 출판사들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책이다.

‘선사시대의 동굴화’에서부터 그 단초가 엿보이는 일러스트레이션의 역사는 이후 ‘이집트의 파피루스’ ‘그리스 로마시대의 도자기와 모자이크’ ‘중세 필사본’ 등에 나타나면서 그 영역을 확대해오는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판화의 기법이 다양해지고 신문과 잡지 매체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는다. 이 책에는 ‘19세기 영국의 북일러스트레이션’ ‘현대 미국의 일러스트레이션’에 이르기까지 미술의 역사 속에 숨어있는 일러스트레이션만의 역사를 구별해 내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내는 한편, ‘일러스트레이션의 정의’ ‘회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의 비교’ ‘그래픽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의 비교’ 등 쉽게 구별하기 어려웠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명쾌한 정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 작업에 도움을 줄 다양한 기법의 설명,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란 이름을 달고 있는 전문직업인들이 갖추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다.

— 정혜옥기자



## 그림으로 처음 보는 우리의 옛 성풍속사 조선시대 춘화도 등 이색자료 풍부히 수록

— 「韓國의 性」 펴낸 윤형노씨

이 책 그 사람

한국인에게 성이란 무엇인가. 조상들은 과연 성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었는가.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각 나라의 성풍속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왜 성풍속사에 관한 책이 출판되지 않는가에 대해 약간의 의문을 가졌던 독자들도 있으리라. 또한 성이 한 나라나 특정집단만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이 우리에는 없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윤형노씨(36)가 펴낸

「韓國의 性」(태백의 책)은 석기시대의 암각화와 신라 고려의 토우, 조선시대의 춘화도 등에서 나타난 우리 조상들의 성의식을 조명한 책이다. 성이란 것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면서도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 자리잡고 있는 것인 관계로 각 민족은 그 특성에 맞는 성문화를 갖고 있다.

“조선 말기 종로 네거리에 육비전이라는 난전이 있었다. 이 난전중에 포목, 모시 등을 도매하던 상점을 동상점이라 한다. 여기에 계집몽종이 찾아와 주인을 보고 말없이 웃고 서있으면 점방주인은 대뜸 그 하녀가 아씨의 심부름을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무로 깎아 만든 남근을 찌주었다고 한다.”

“동상점에 왔느냐, 왜 웃기만 하느냐”는 우리 속담은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생활과 밀접한 속담 속에까지 성문화가 침투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韓國의 性」은 우리의 성문화의 역사를 조망하면서 성신앙의 과거와 현재를 살피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한국의 성기승배사상은

그 뿌리가 깊다. 우리 조상들은 남녀의 성행위가 구체적으로 생명체의 탄생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성기승배사상은 거대한 남성을 드러낸 신라 때의 토우들만 봐도 그 숭배의 정도를 알 수 있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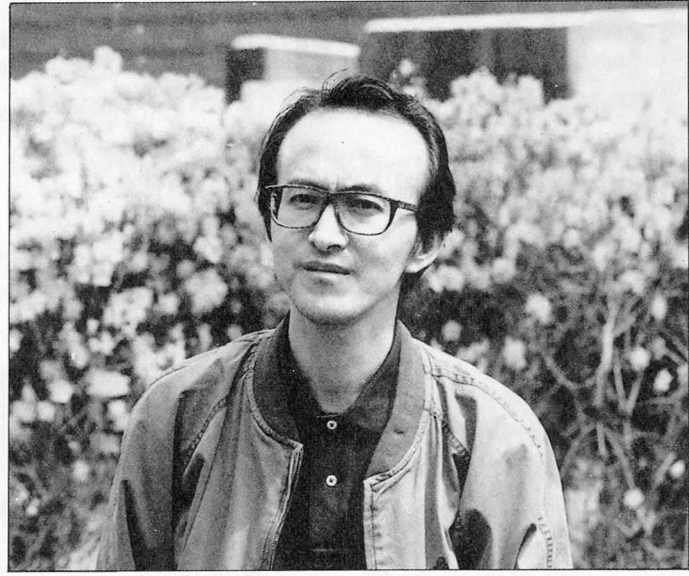
현대에 와서도 성기승배사상은 남아 있는데 전국에 널리 퍼져 있는 남근석이 바로 그것이다. 윤형노씨는 “생산과 다산풍요에 관계된 믿음에서부터” 남근석이 유래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의 춘화도를 실고 있다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소장자들이 '남부끄러워서' 내놓지 않았기에 춘화도는 지금까지 '조선시대에 그려졌을 것'이라는 추측만 무성했을 뿐 그 실체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춘화도가 갖는 특징을 일본과 중국의 것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비록 춘화도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볼 수 없는 책이 되긴 했지만 사료적인 가치는 충분하다는 것이 윤형노씨의 말이다.

“우리의 성문화는 밝고 건강합니다. 인간의 성생활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을 죄악시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연 그대로 드러내놓고 사회적 의미로 부각시켜 건전한 쪽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끄는 지혜도 이 책을 통해 배워볼 수 있다.

— 이성수 기자



## 언어의 그물을 던져 낚는 寂滅의 침묵 장르 구분 넘어서는 '공터에서의 글쓰기'

— 「달맞이꽃에 대한 명상」 펴낸 최승호씨

이 책 그 사람

명징한 언어로 죽음과 문명의 세계를 섬뜩하게 그려온 최승호시인(39)이 투명한 언어로 밝음의 세계를 둥글게 표현한 「달맞이꽃에 대한 명상」(세계사)을 펴냈다. 문명의 대척지인 '공터'에서 존재의 빛남없이 서식하는 미물들이 '꿈의 힘'으로써 “존재의 연금술적 변모”를 이루어내고 기어이 그들이 꿈꾸던 '밝음'과 숨—하는 모습이 펼쳐져 있다.

그 미물들이 밝음과 하나되기 위해서는 '있음' 그 자체로부터 시작한다. 까마귀의 경우는 밝음과의 극명한 명암대비로써 밝음을 밝게 한다. “그 검은 새가 날아가는 낮에는, 해도 더 환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에, 매미, 잠자리 등은 면벽수도승처럼 엄청난 구속을 자처한 뒤 껍데기를 벗음으로써 존재의 변모를 꾀한다. 달맞이꽃은 여러 단계를 일련의 과정으로 거친다. 그의 “꿈의 힘”은 곧 그의 이름이 되었고, 꿈을 이룬 달맞이꽃에서는 달의 향기가 난다.

“눈부신 해를 바라는 해바라기보다 은은한 달을 맞이하는 달맞이꽃이 나는 마음에 든다. 다시 말해 보자. 나는 밝음을 바라는 꽃보다도 밝음을 맞이하는 꽃이 더 마음에 든다. 초가 지붕 위의 박덩어리들도 달을 맞이하고 나서는 임신해, 보름달처럼 둥글고 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최시인은 더 나아가 “달을 거느리고 가는 달무리에, 달맞이꽃의 향기가 서려 있음”을 본다. 스스로를 無化시킨 것들이 “없음과 없음으로 합일하는 형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는 있음과 있음의 합일을 기원하고, 노장은 자이를 비우면 절대가

홀려든다는 사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에 비해 석가는 제행무상 등 없음과 없음으로 합일하는 형식을 설교합니다. 달을 궁극적 실제, 꽃을 개체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달맞이꽃이라고 이름붙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설적이게도 「달맞이꽃에 대한 명상」은 “있음의 묘사” “있음의 이야기” “있음에 대한 명상”으로 구성돼 있다. 있음의 풍요로움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풍요로움을 홀려넘치게 표현해내고 있는 그의 글은, 더욱 역설적이게도 어린이들이 구사하는 어휘량보다 적은데, 不立文字를 향하는 언어의 그물을 던져 적멸을 낚이에는 그래도 수다스러운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한줌의 소금처럼 고요 속에 녹아버린 말이 그 침묵으로 새로워질 때, 일부러 관찰하지 않아도 세계의 비의가 먼저 말을 건네온다고 시인은 전한다.

시어보다 더 울림이 큰 언어와 시보다 더 시적인 표현으로 하염없이 여린 것들끼리의 교감 혹은 하찮은 것과 시인과의 공감을 보여주는 이 작품집을 저자는 장르의 울타리를 넘어선 “공터에서의 글쓰기”라고 명명한다. 울타리를 치면 그 안이 마당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천하가 자기 마당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춘전에서 글쓰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그는 장편소설 「낮은 곳이 그리운 옥망」(가제) 원고를 이미 한 출판사에 넘겼으며, 49편의 시를 묶은 시집을 올해 안에 낼 예정이다. 그리고 이 작품집을 화가 박지숙씨가 그림으로 옮긴 「달맞이꽃에 대한 명상展」이 4월 20일에서 5월 9일까지 녹색갤러리에서 열린다고 한다.

— 김종식 기자